

주제전문사서제의 도입 여부가 도서의 선정과 대출에 미치는 효과 분석*

An Analysis on the Effectiveness of Book Selection and Circulation After Introducing to Subject Librarian

노동조 (Dong-Jo Noh)**

남민석 (Min-Seok Nam)***

초 록

본 연구는 대학도서관에서 주제전문사서제에 의한 도서선정의 효과를 입증하기 위하여 주제전문사서제도가 도입되기 이전과 이후에 선정된 개별 도서에 대한 대출 현황을 조사하여 그 효과성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이를 위하여 조사대상이 된 S대학교 도서관에서 주제전문사서제도를 도입한 2005년 9월을 기점으로 이전과 이후 3년씩 총 6년 동안에 선정된 도서 186,435권에 대한 총 대출 현황(622,213권)을 t-test와 ANOVA를 통하여 검정하였다. 연구 결과, 첫째, 주제전문사서제의 도입 이후에는 사서에 의한 도서선정의 비율이 높아졌다. 둘째, 주제전문사서제의 도입 이전과 비교하여 도입 이후에는 교수와 사서에 의해 선정된 국외서에 대한 대출이 유의미하게 증가하였다. 셋째, 주제전문사서제의 도입 이전과 비교하여 도입 이후에는 교수가 선정한 도서에 대한 대출 횟수가 유의미하게 증가한 학문분야가 많아진 반면, 학생이 선정한 도서는 대출 횟수가 유의미하게 감소한 분야가 많았다.

ABSTRACT

This study analyzed the difference between the two situations to verify the effectiveness of the book selection by the subject professionals in a academic library. In this, some circulation statistics before and after introduction to subject specialists were compared. Moreover, by using Minitab and t-test, ANOVA among other statistical techniques, 186,435 books selected 3 years before September 2005 and after 3 years and 622,213 circulation statistics about those books in 'S' University Library were compared and analysed. The results were as follows: (1) After introduction to the subject librarian, the proportion of books selected by librarians were increased. (2) After introduction to subject reference librarian, the foreign books selected by the faculty and the librarians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ly increased. (3) By academic field, the academic fields of the books selected by the faculty were significantly increased, but the academic fields of the books selected by the students were significantly decreased.

키워드: 주제전문사서, 대학도서관, 도서선정, 대출, 사례연구

subject librarian, academic library, book selection, circulation, case study

* 본 연구는 2013학년도 상명대학교 교내연구비를 지원받아 수행하였음.

** 상명대학교 인문사회과학대학 문헌정보학과 부교수(djnoh@smu.ac.kr) (제1저자)

*** 성균관대학교 삼성학술정보관(msnam11@skku.edu) (교신저자)

■ 논문접수일자: 2013년 8월 22일 ■ 최초심사일자: 2013년 9월 4일 ■ 게재확정일자: 2013년 9월 9일

■ 정보관리학회지, 30(3), 229-247, 2013. [http://dx.doi.org/10.3743/KOSIM.2013.30.3.229]

1. 서론

세계 경제가 장기 불황의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면서 대학도서관의 예산도 감소와 정체를 반복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학도서관은 전자저널과 학술 웹 자원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도서구입 예산의 일부가 전자자료 구입비로 전환되는 등 도서구입 예산에 대한 압박이 가중되고 있다.

줄어든 예산으로 인하여 필요한 도서만을 선별 구입함에도 불구하고 구입도서의 상당수는 단 1회도 대출되지 않는 무대출도서로 전락하고 있다. 일례로 성균관대학교 과학학술정보관의 경우, 2006년 한 해 동안 구입된 도서의 35%가 단 한 번도 대출되지 않았음을 보고하고 있다(성동희, 2008).

도서구입비 축소 등 예산의 문제와 대출의 정체 상황에서 국내 대학도서관은 또 하나의 전기를 마련하게 된다. 그동안 논의만 있었을 뿐,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도입을 주저하던 주제전문사서제가 일부 대학도서관을 중심으로 도입되기 시작한 것이다. 주제전문사서제도는 2005년에 성균관대학교 도서관을 위시하여 2007년에는 서울대학교와 연세대학교, 그리고 2008년에는 영남대학교와 경상대학교, 2009년에는 전남대학교와 부산대학교를 비롯한 여러 대학에서 이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남여훈, 2011).

주제전문사서의 역할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들이 있다. Crossley(1974)는 주제전문사서의 주요 역할은 특정 주제 분야에 대한 자료의 선정과 수집, 이용자에게 필요한 자료와 정보의 제공, 서지조사 및 참고봉사, 주제 분야의 자료

분류와 목록이라고 하였다. Martin(1996)은 영국의 대학도서관 사서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주제전문사서의 역할을 장서개발, 참고봉사, 정보봉사, 이용자교육의 4가지로 제시하였다. 이처럼 주제전문사서의 주요 역할 중의 하나는 자료의 선정과 수집 및 균형 있는 장서개발업무라고 할 수 있다(김정근, 1993).

그러나 주제전문사서제가 도입된 이후에 도서관 사서들이 가장 난감해 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도서의 선정이다. 주제전문사서들은 본인들에 의해서 이루어진 도서선정이 과연 옳은가에 대한 고민을 계속하고 있으며, 일부 주제전문사서들은 도서선정을 교수의 추천도서에 의존하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대학도서관에서 이루어지는 주제전문사서제에 의한 도서 선정이 과연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는 지에 대해서 검증할 필요가 있으며, 그 결과는 추후 이용자들의 실제 이용을 고려한 효과적인 도서선정 정책의 수립에도 기여할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대학도서관에서 주제전문사서제에 의해 이루어진 선정 도서가 실제로 잘 이용되고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하여 주제전문사서제의 도입 이전과 이후, 각각의 시기에 이용자의 신분별, 성별, 학문분야별 대출 횟수를 분석하여 도서선정의 효과성을 입증하고자 한다.

2. 선행연구

실제의 데이터를 활용하여 도서선정의 효과를 연구한 사례는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도서선정의 효과에 관한 국내의 연구사례는 매우 제한적이며, 실증적 데이터를 활용해

서 도서선정의 효과를 연구한 사례는 단 한 편에 불과했다.

김정근과 구영미(2001)는 교수에 의한 도서 추천제의 문제점을 논의하면서 도서관 전체 장서에서 교수에 의한 도서선정 비율이 지나치게 높고, 기본 장서는 교수 개개인이 모두 소장하여 추천하지 않게 됨으로써 오히려 도서관 장서의 불균형을 초래한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도서관 자료선정에서 실질적으로 사서가 개입할 수 있는 여건을 모색해야 한다고 역설하였다.

도서선정과 대출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황옥경(2007)의 연구는 국내 K대학 도서관을 사례로 하여 3년간의 수서 및 대출 기록을 바탕으로 7,717종의 16,809권을 대상으로 교수, 사서, 학생에 의한 도서선정 및 대출 현황을 조사·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사서에 의한 도서선정이 전체의 76%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학생은 16%, 교수는 8%였다. 신분별 권당 평균 대출횟수를 분석한 결과, 학생에 의해 선정된 도서가 5.448회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은 사서 4.576회, 교수 1.150회의 순이었다.

도서선정의 효과에 관한 외국의 연구는 국내 보다는 다양한 연구사례가 있으나, 이 역시 실제의 데이터를 활용한 연구는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Hamaber(1992)는 도서관 장서의 비용 효과성을 측정하기 위하여 Louisiana State University에서 1990년 9월부터 1991년 2월까지 6개월 동안 1,444권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단 한 번도 대출되지 않은 도서가 전체의 50.13%, 1회 대출된 도서가 31.44%, 2회 이상 대출된 도서는 11.77%로 나타났다.

Mouyal(2007)은 University of Maryland

도서관의 분관인 Shady Grove Library의 소장 도서를 대상으로 이용자 요구에 의한 도서와 지정도서를 연구한 결과, 잘 측정된 이용자 요구가 장서관리의 한 요소가 될 수 있다고 하였다. 또한 대출통계 분석을 통한 교수와의 접촉, 변경된 교과과정의 지속적인 반영 등이 중요함을 지적하였다.

Millson-Martula(1985)는 Chicago의 한 작은 대학에서 역사분야의 도서 691권을 대상으로 1979년 1월부터 1980년 6월까지의 대출통계를 분석한 결과, 교수가 선정한 도서의 평균 대출횟수는 1.98로 사서가 선정한 도서의 평균 대출횟수 1.61보다 많았으며, 선정된 도서의 대출 비율도 교수가 선정한 도서의 대출 비율이 61.90%로 사서가 선정한 도서의 60.42%보다 높았다.

Connell(1991)은 Illinois의 Millikin 대학에서 1984년부터 1986년까지 교수와 사서가 선정한 도서 304권의 대출통계를 분석한 결과, 평균 대출횟수는 사서가 선정한 도서가 2.32회로 교수가 선정한 도서 1.88회보다 많았으며, 적어도 1회 이상 대출된 도서의 비율은 사서가 선정한 도서가 72%로 교수가 선정한 도서의 62%보다 높았다.

선행연구를 분석한 결과, 외국의 경우에는 실제의 도서 선정과 대출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연구사례가 일부 있는 반면에 국내의 경우는 황옥경의 연구를 제외하고는 전무함을 할 수 있다. 그리고 황옥경의 연구도 중규모의 대학도서관을 대상으로 주제별, 신분별 도서선정 및 대출 현황만을 분석하여 포괄적인 결과를 제시하여 주지 못할 뿐만 아니라 본 연구처럼 주제전문사서제도에 초점을 맞추고 이 제도의 도입 이전과 이후를 비교분석한 연구는 아니었다. 따라서 황

육경의 연구와 본 연구는 연구의 목적 및 대상, 분석한 데이터의 양 및 분석 방법 등에 있어서 큰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로 비추어 볼 때에 대규모의 대학도서관을 대상으로 주제전문사서제도의 도입 이전과 이후로 나누어서 실제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도서선정의 효과성을 비교분석한 연구사례는 없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S대학교 도서관의 도서선정과 대출횟수에 관한 실제의 데이터를 활용하여 신분별, 성별, 학문분야별 선정자에 따른 주제전문사서제도의 도입 전후의 도서 선정과 대출의 효과를 비교분석한다.

3. 연구방법

전술한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통하여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였다. 우선, 분석할 데이터의 일관성과 완전성을 위하여 본 연구의 대상이 된 S대학교 소속의 교수와 사서, 학생들에 의해 이루어진 도서선정의 경우만을 조사대상으로 하였다. 다음은 주제전문사서제도의 도입 이전과 이후의 상황을 비교분석하기 위하여 S대학교 도서관에서 주제전문사서제도를 도입한 2005년 9월을 기점으로 하여 직전 3년(2002년~2004년) 동안에 구입한 총 도서 87,770권에 대한 모든 대출 자료를 수집하였다. 그리고 S대학교 도서관에서 주제전문사서제도를 도입하여 이 제도가 정착되고 실제로 주제전문사서에 의해서 도서선정 업무가 이루어진 최근 3년(2010년~2012년) 동안에 구입한 총 도서 98,665권에

대한 대출 자료를 수집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수집된 총 186,435권에 대한 개별 도서의 대출 상황을 주제전문사서제도 도입 전후로 나누어 도서별, 이용자의 신분별과 성별, 학문분야별 대출 횟수의 차이를 비교분석하였다. 수집된 데이터는 Minitab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변인간의 관계 검정을 위해서 표본 집단 간의 평균 차이로서 유의도를 검정하는 t-test와 분산분석(ANOVA)을 사용하였다. 유의수준은 <.05로 하였다.

4. 도서의 선정과 대출 현황

전술한 방법을 통하여 수집한 S대학교 도서관의 2002년~2004년, 2010년~2012년 동안의 도서 선정과 대출 현황은 다음과 같다.

4.1 도서 선정

S대학교 도서관에서 주제전문사서제를 도입하기 이전 3년(2002년~2004년) 동안의 선정 책 수는 모두 87,770권(국내서 69,825권, 국외서 17,945권)이며, 주제전문사서제도 도입 이후 3년(2010년~2012년) 동안의 선정 책 수는 모두 98,665권(국내서 73,767권, 국외서 24,898권)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주제전문사서제도의 도입 이후에 선정된 도서가 더 많으며, 주제전문사서제도의 도입 이전과 이후 모두 국내서가 국외서보다 많음을 알 수 있다.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신분별로 선정 책 수를 분석해 보면, 주제전문사서제도의 도입 이전과 이후 모두 사서, 학생, 교수의 순으로

〈표 1〉 도서별 선정 책 수

구분	주제전문사서제도 이전 (2002~2004)				주제전문사서제도 이후 (2010~2012)				계			
	교수	사서	학생	소계	교수	사서	학생	소계	교수	사서	학생	소계
국내서	1,349	43,074	25,402	69,825 (79.6%)	1,499	51,937	20,331	73,767 (25.2%)	2,848	95,011	45,733	143,592 (77.0%)
국외서	11,178	4,296	2,471	17,945 (20.4%)	9,405	9,805	5,688	24,898 (74.8%)	20,583	14,101	8,159	42,843 (23.0%)
계	12,527 (14.3%)	47,370 (54.0%)	27,873 (31.7%)	87,770 (100%)	10,904 (11.0%)	61,742 (62.6%)	26,019 (26.4%)	98,665 (100%)	23,431 (12.6%)	109,112 (58.5%)	53,892 (28.9%)	186,435 (100%)

많으나, 선정 비율에서는 주제전문사서제도의 도입 이전에는 사서 54.0%, 학생 31.7%, 교수 14.3%의 순으로 나타났고, 주제전문사서제도의 도입 이후에는 사서 62.6%, 학생 26.4%, 교수 11.0%로 나타났다. 따라서 주제전문사서제도의 도입 이후에는 사서에 의한 도서 선정의 비율이 증가한 반면, 학생과 교수에 의한 도서 선정의 비율은 감소했음을 알 수 있다.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성별로 선정 책 수를 분석해 보면, 교수와 학생의 경우에는 주제전문사서제도의 도입 이전과 이후에서 모두 남성에게 의한 도서 선정이 많은 반면에 사서의 경우는 주제전문사서제도의 도입 이전은 남성에게 의한 도서 선정이 많았으나, 주제전문사서제도의 도입 이후는 오히려 여성에게 의한 도서 선정이 많았다.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학문분야별로 선정 책 수를 분석해 보면, 주제전문사서제도의 도입 이전과 이후에서 모두 문과대학, 공과대학, 사회과학대학의 순으로 도서 선정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선정 참여율 분석에서는 사서의 경우, 대부분의 사서가 선정에 참여하므로 선정 참여율 분석 대상에서 제외하고, 교수와 학생만을 대상으로 하여 선정 참여율을 분석하였다. 선정 참여율은 S대학교 소속의 전체 교수와 학생 중에서 실제로 선정에 참여한 교수와 학생의 비율을 측정하였다. 〈표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성별로 선정 참여율을 분석해 보면, 교수의 경우는 주제전문사서제도의 도입 이전에 비해 주제전문사서제도 도입 이후의 선정 참여율이 낮아졌으며, 남성의 선정 참여율은 낮아진 반면

〈표 2〉 성별 선정 책 수

구분	주제전문사서제도 이전 (2002~2004)				주제전문사서제도 이후 (2010~2012)				계			
	교수	사서	학생	소계	교수	사서	학생	소계	교수	사서	학생	소계
남	11,319	45,149	16,928	73,396 (83.6%)	9,187	22,099	13,958	45,244 (45.9%)	20,506	67,248	30,886	118,640 (63.6%)
여	1,208	2,221	10,945	14,374 (16.4%)	1,717	39,643	12,061	53,421 (54.1%)	2,925	41,864	23,006	67,795 (36.4%)
계	12,527	47,370	27,873	87,770 (100%)	10,904	61,742	26,019	98,665 (100%)	23,431	109,112	53,892	186,435 (100%)

〈표 3〉 학문분야별 선정 책 수

구분	주제전문사서제도 이전 (2002~2004)			주제전문사서제도 이후 (2010~2012)			계		
	교수	학생	소계	교수	학생	소계	교수	학생	소계
경영대학	652	2,185	2,837 (7.0%)	355	1,686	2,041 (5.7%)	1,007	3,871	4,878 (6.4%)
경제대학	291	1,444	1,735 (4.3%)	246	1,890	2,136 (5.9%)	537	3,334	3,871 (5.1%)
공과대학	1,474	4,947	6,421 (15.9%)	791	3,980	4,771 (13.2%)	2,265	8,927	11,192 (14.7%)
문과대학	3,274	4,637	7,911 (19.6%)	2,404	4,776	7,180 (19.9%)	5,678	9,413	15,091 (19.8%)
법과대학	227	960	1,187 (2.9%)	3,567	2,038	5,605 (15.6%)	3,974	2,998	6,792 (8.9%)
사범대학	1,034	2,988	4,022 (10.0%)	287	1,397	1,684 (4.7%)	1,321	4,385	5,706 (7.5%)
사회과학대학	2,171	2,949	5,120 (12.7%)	1,426	2,961	4,387 (12.2%)	3,597	5,910	9,507 (12.5%)
생명공학대학	295	652	947 (2.3%)	60	452	512 (1.4%)	355	1,104	1,459 (1.9%)
스포츠과학대학	102	206	308 (0.8%)	41	235	276 (0.8%)	143	441	584 (0.8%)
약학대학	310	678	988 (2.4%)	249	536	785 (2.2%)	559	1,214	1,773 (2.3%)
예술대학	321	1,396	1,717 (4.3%)	467	1,014	1,481 (4.1%)	788	2,410	3,198 (4.2%)
유학대학	667	797	1,463 (3.6%)	97	289	386 (1.1%)	764	1,086	1,850 (2.4%)
자연과학대학	843	1,261	2,104 (5.2%)	345	1,692	2,037 (5.7%)	1,188	2,953	4,141 (5.4%)
정보통신대학	865	2,714	3,579 (8.9%)	314	2,425	2,740 (7.6%)	1,179	5,140	6,319 (8.3%)
계	12,526 (31.1%)	27,814 (68.9%)	40,340 (100%)	7,064 (29.6%)	25,372 (70.4%)	36,021 (100%)	21,175 (30.3%)	53,186 (69.7%)	76,361 (100%)

〈표 4〉 성별 선정 참여율

구분	주제전문사서제도 이전 (2002~2004)						주제전문사서제도 이후 (2010~2012)						계					
	교수			학생			교수			학생			교수			학생		
	대상 인원	참여 인원	참여 율	대상 인원	참여 인원	참여 율	대상 인원	참여 인원	참여 율	대상 인원	참여 인원	참여 율	대상 인원	참여 인원	참여 율	대상 인원	참여 인원	참여 율
남	897	379	42.3%	24,347	1,892	7.8%	1,131	313	27.7%	22,375	3,205	14.3%	2,028	692	34.1%	46,722	5,097	10.9%
여	127	32	25.2%	8,902	1,210	13.6%	186	62	33.3%	11,416	2,747	24.1%	313	94	30.0%	20,318	3,957	19.5%
계	1,024	411	40.1%	33,249	3,102	9.3%	1,317	375	28.5%	33,791	5,952	17.6%	2,341	786	33.6%	67,040	9,054	13.5%

〈표 5〉 학문분야별 선정 참여율

구분	주제전문사서제도 이전 (2002~2004)						주제전문사서제도 이후 (2010~2012)						계					
	교수			학생			교수			학생			교수			학생		
	대상 인원	참여 인원	참여 율	대상 인원	참여 인원	참여 율	대상 인원	참여 인원	참여 율	대상 인원	참여 인원	참여 율	대상 인원	참여 인원	참여 율	대상 인원	참여 인원	참여 율
경영대학	40	23	57.5%	3,521	204	5.8%	57	25	43.9%	4,173	432	10.4%	97	48	49.5%	7,694	636	8.3%
경제대학	34	23	67.6%	1,965	174	8.9%	31	16	51.6%	2,542	453	17.8%	65	39	60.0%	4,507	627	13.9%
공과대학	123	100	81.3%	5,549	690	12.4%	146	71	48.6%	5,565	1,122	20.2%	269	171	63.6%	11,114	1,812	16.3%
문과대학	70	49	70.0%	3,075	428	13.9%	69	49	71.0%	3,017	809	26.8%	139	98	70.5%	6,092	1,237	20.3%
법과대학	26	17	65.4%	2,438	118	4.8%	56	36	64.3%	1,447	380	26.3%	82	53	64.6%	3,885	498	12.8%
사범대학	18	11	61.1%	1,482	165	11.1%	22	15	68.2%	1,276	323	25.3%	40	26	65.0%	2,758	488	17.7%
사회과학대학	53	46	86.8%	2,773	303	10.9%	65	40	61.5%	3,234	633	19.6%	118	86	72.9%	6,007	936	15.6%
생명공학대학	19	11	57.9%	747	98	13.1%	19	6	31.6%	730	138	18.9%	38	17	44.7%	1,477	236	16.0%
스포츠과학대학	11	9	81.8%	519	23	4.4%	10	4	40.0%	518	56	10.8%	21	13	61.9%	1,037	79	7.6%
약학대학	20	17	85.0%	584	71	12.2%	23	12	52.2%	447	120	26.8%	43	29	67.4%	1,031	191	18.5%
예술대학	26	14	53.8%	1,482	133	9.0%	32	16	50.0%	1,724	220	12.8%	58	30	51.7%	3,206	353	11.0%
유학대학	12	6	50.0%	504	61	12.1%	8	4	50.0%	370	65	17.6%	20	10	50.0%	874	126	14.4%
자연과학대학	50	40	80.0%	1,133	178	15.7%	90	30	33.3%	1,490	463	31.1%	140	70	50.0%	2,623	641	24.4%
정보통신대학	55	44	80.0%	2,824	449	15.9%	88	37	42.0%	3,345	663	19.8%	143	81	56.6%	6,169	1,112	18.0%
계	557	410	73.6%	28,596	3,095	10.8%	716	361	50.4%	29,878	5,877	19.7%	1,273	771	60.6%	58,474	8,972	15.3%

에 여성의 선정 참여율은 높아졌다. 학생의 경우는 주제전문사서제도의 도입 이전에 비해 주제전문사서 도입 이후에 남성, 여성 모두의 선정 참여율이 높아졌다.

이 처럼 교수의 선정 참여율이 낮아진 이유는 2000년대 중반 이후부터 전자자료가 활성화됨에 따라 교수들이 그들의 연구에서 전자저널을 선호하여 많이 이용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반면에 학생의 선정 참여율이 높아진 이유는 조사대상이 된 S대학교의 경우, 온라인 희망도서 신청이 활성화되고, 종전의 일괄 3책 구입 방식에서 우선 1책 구입방식으로의 정책 전환과 함께 이용자의 추가 요구가 있을 경우에만 복본을 구입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변경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표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학문분야별로 선정 참여율을 분석해 보면, 교수의 경우에는 주제전문사서제도 도입 이후에 인문/사회과학 분야

에서는 선정 참여율이 유지 또는 소폭 감소한 반면, 자연/공학 분야에서는 전 학문분야에서 대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학생의 경우에는 전 학문분야에서 선정 참여율이 증가하였다. 학문분야별로 교수의 선정 참여율에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는 인문/사회과학 분야의 경우, 여전히 교수들의 연구에 도서가 많이 활용되는 반면에 자연/공학 학문분야에서는 전자저널에 대한 선호도가 높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4.2 도서 대출

S대학교 도서관에서 주제전문사서제도를 도입하기 이전 3년(2002년~2004년) 동안에 교수, 사서, 학생이 선정한 도서에 대한 총 대출 책 수는 339,686권(국내서 320,360권, 국외서 19,326권)이며, 주제전문사서제도 도입 이후 3년(2010년~2012년) 동안은 총 282,527권(국내서 259,556

권, 국외서 22,971권)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주제전문사서제도의 도입 이전에 대출된 도서가 더 많으며, 주제전문사서제도 도입 이전과 이후 모두에서 국내서가 국외서보다 많음을 알 수 있다.

〈표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신분별로 대출 횟수를 분석해 보면, 국내서와 국외서 모두에

서 학생이 선정한 도서가 가장 많았으며, 이어서 국내서의 경우는 사서와 교수가 선정한 도서의 순이며, 국외서의 경우는 교수와 사서의 순이었다.

〈표 7〉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성별로 대출 횟수를 분석해 보면, 교수의 경우에는 주제전문사서제도의 도입 이전과 이후 모두에서 여성이

〈표 6〉 선정도서에 대한 도서별 대출 횟수

구분	주제전문사서제도 이전 (2002~2004)			주제전문사서제도 이후 (2010~2012)			계			
	책수	대출 횟수	평균	책수	대출 횟수	평균	책수	대출 횟수	평균	
교수	국내서	1,349	2,746	2.04	1,499	3,234	2.16	2,848	5,980	2.10
	국외서	11,178	6,283	0.56	9,405	7,242	0.77	20,583	13,525	0.66
	소계	12,527	9,029	0.72	10,904	10,476	0.96	23,431	19,505	0.83
사서	국내서	43,074	152,674	3.54	51,937	127,074	2.45	95,011	279,748	2.94
	국외서	4,296	1,022	0.24	9,805	5,650	0.58	14,101	6,672	0.47
	소계	47,370	153,696	3.24	61,742	132,724	2.15	109,112	286,420	2.63
학생	국내서	25,402	164,940	6.49	20,331	129,248	6.36	45,733	294,188	6.43
	국외서	2,471	12,021	4.86	5,688	10,079	1.77	8,159	22,100	2.71
	소계	27,873	176,961	6.35	26,019	139,327	5.35	53,892	316,288	5.87
계	국내서	69,825	320,360	4.59	73,767	259,556	3.52	143,592	579,916	4.04
	국외서	17,945	19,326	1.08	24,898	22,971	0.92	42,843	42,297	0.99
	소계	87,770	339,686	3.87	98,665	282,527	2.86	186,435	622,213	3.34

〈표 7〉 선정도서에 대한 성별 대출 횟수

구분	주제전문사서제도 이전 (2002~2004)			주제전문사서제도 이후 (2010~2012)			계			
	책수	대출 횟수	평균	책수	대출 횟수	평균	책수	대출 횟수	평균	
교수	남	11,319	7,738	0.68	9,187	7,974	0.87	20,506	15,712	0.77
	여	1,208	1,291	1.07	1,717	2,502	1.46	2,925	3,793	1.30
	소계	12,527	9,029	0.72	10,904	10,476	0.96	23,431	19,505	0.83
사서	남	45,149	146,556	3.25	22,099	26,989	1.22	67,248	173,545	2.58
	여	2,221	7,140	3.21	39,643	105,735	2.67	41,864	112,875	2.70
	소계	47,370	153,696	3.24	61,742	132,724	2.15	109,112	286,420	2.63
학생	남	16,928	107,137	6.33	13,958	75,508	5.41	30,886	182,645	5.91
	여	10,945	69,824	6.38	12,061	63,819	5.29	23,006	133,643	5.81
	소계	27,873	176,961	6.35	26,019	139,327	5.35	53,892	316,288	5.87
계	남	73,396	261,431	3.56	45,244	110,471	2.44	118,640	371,902	3.13
	여	14,374	78,255	5.44	53,421	172,056	3.22	67,795	250,311	3.69
	소계	87,770	339,686	3.87	98,665	282,527	2.86	186,435	622,213	3.34

선정한 도서에 대한 대출이 많았으나, 사서의 경우에는 주제전문사서제도의 도입 이전에서는 남성이 선정한 도서가, 주제전문사서제도의 도입 이후에는 여성의 선정한 도서에 대한 대출이 많았다. 학생의 경우에는 주제전문사서제도의 도입 이전에는 여성의 선정한 도서가, 주제전문사서제도의 도입 이후에는 남성의 선정한 도서에 대한 대출이 많았다.

〈표 8〉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학문분야별로 선정한 도서의 대출 횟수를 분석해 보면 정보통신대학, 경영대학, 경제대학의 순으로 많았다. 교수가 선정한 도서의 경우에는 스포츠과학대학, 사회과학대학, 정보통신대학의 순으로 많이 대출되었다. 그리고 학생이 선정한 도서의 경우에는 정보통신대학, 생명공학대학, 약학대학의 순이었다.

〈표 8〉 선정도서에 대한 학문분야별 대출 횟수

구분	주제전문사서제도 이전 (2002~2004)			주제전문사서제도 이후 (2010~2012)			계			
	책수	대출 횟수	평균	책수	대출 횟수	평균	책수	대출 횟수	평균	
교수	경영대학	652	681	1.04	355	427	1.20	1,007	1,108	1.10
	경제대학	291	271	0.93	246	283	1.15	537	554	1.03
	공과대학	1,474	1,355	0.92	791	800	1.01	2,265	2,155	0.95
	문과대학	3,274	885	0.27	2,404	1,340	0.56	5,678	2,225	0.39
	법과대학	227	72	0.32	3,567	2,649	0.74	3,794	2,721	0.72
	사범대학	1,034	684	0.66	287	214	0.75	1,321	898	0.68
	사회과학대학	2,171	2,531	1.17	1,426	2,300	1.61	3,597	4,831	1.34
	생명공학대학	295	156	0.53	60	67	1.12	355	223	0.63
	스포츠과학대학	102	156	1.53	41	57	1.39	143	213	1.49
	약학대학	310	224	0.72	249	401	1.61	559	625	1.12
	예술대학	321	303	0.94	467	581	1.24	788	884	1.12
	유학대학	667	305	0.46	97	98	1.01	764	403	0.53
	자연과학대학	843	595	0.71	345	359	1.04	1,188	954	0.80
	정보통신대학	865	811	0.94	314	601	1.91	1,179	1,412	1.20
계	12,526	9,029	0.72	10,649	10,177	0.96	23,175	19,206	0.83	
학생	경영대학	2,185	15,289	7.00	1,686	10,073	5.97	3,871	25,362	6.55
	경제대학	1,444	8,810	6.10	1,890	11,509	6.09	3,334	20,319	6.09
	공과대학	4,947	33,247	6.72	3,980	24,168	6.07	8,927	57,415	6.43
	문과대학	4,637	24,966	5.38	4,776	19,028	3.98	9,413	43,994	4.67
	법과대학	960	5,843	6.09	2,038	12,440	6.10	2,998	18,283	6.10
	사범대학	2,988	17,813	5.96	1,397	7,232	5.18	4,385	25,045	5.71
	사회과학대학	2,949	18,523	6.28	2,961	14,077	4.75	5,910	32,600	5.52
	생명공학대학	652	4,660	7.15	452	2,953	6.53	1,104	7,613	6.90
	스포츠과학대학	206	1,108	5.38	235	1,232	5.24	441	2,340	5.31
	약학대학	678	4,782	7.05	536	3,206	5.98	1,214	7,988	6.58
	예술대학	1,396	8,784	6.29	1,014	4,370	4.31	2,410	13,154	5.46
	유학대학	797	4,337	5.44	289	1,232	4.26	1,086	5,569	5.13
	자연과학대학	1,261	9,337	7.40	1,692	9,788	5.78	2,953	19,125	6.48
	정보통신대학	2,714	19,149	7.06	2,426	16,388	6.76	5,140	35,537	6.91
계	27,814	176,648	6.35	25,372	137,696	5.43	53,186	314,344	5.91	

구분	주제전문사서제도 이전 (2002~2004)			주제전문사서제도 이후 (2010~2012)			계			
	책수	대출 횟수	평균	책수	대출 횟수	평균	책수	대출 횟수	평균	
계	경영대학	2,837	15,970	5.63	2,041	10,500	5.14	4,878	26,470	5.43
	경제대학	1,735	9,081	5.23	2,136	11,792	5.52	3,871	20,873	5.39
	공과대학	6,421	34,602	5.39	4,771	24,968	5.23	11,192	59,570	5.32
	문과대학	7,911	25,851	3.27	7,180	20,368	2.84	15,091	46,219	3.06
	법과대학	1,187	5,915	4.98	5,605	15,089	2.69	6,792	21,004	3.09
	사범대학	4,022	18,497	4.60	1,684	7,446	4.42	5,706	25,943	4.55
	사회과학대학	5,120	21,054	4.11	4,387	16,377	3.73	9,507	37,431	3.94
	생명공학대학	947	4,816	5.09	512	3,020	5.90	1,459	7,836	5.37
	스포츠과학대학	308	1,264	4.10	276	1,289	4.67	584	2,553	4.37
	약학대학	988	5,006	5.07	785	3,607	4.59	1,773	8,613	4.86
	예술대학	1,717	9,087	5.29	1,481	4,951	3.34	3,198	14,038	4.39
	유학대학	1,464	4,642	3.17	386	1,330	3.45	1,850	5,972	3.23
	자연과학대학	2,104	9,932	4.72	2,037	10,147	4.98	4,141	20,079	4.85
	정보통신대학	3,579	19,960	5.58	2,740	16,989	6.20	6,319	36,949	5.85
계	40,340	185,677	4.60	36,021	147,873	4.11	76,361	333,550	4.37	

5. 주제전문사서제의 도입 전후에 따른 선정 도서의 대출 효과성 분석

5.1 선정 도서의 대출횟수 비교

〈표 9〉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선정 도서에 대한 평균 대출횟수를 분석한 결과, 주제전문사서제도가 도입되기 이전(3.87)이 주제전문사서제도

의 도입 이후(2.86)보다 높았으며,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0.000).

또한 〈표 10〉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국내서(4.59 대 3.52)와 국외서(1.08 대 0.92)의 경우 모두 대출 횟수는 주제전문사서제도의 도입 이전에 비해 주제전문사서제도의 도입 이후에 선정된 도서의 대출 횟수가 유의미하게 감소하였고 이 역시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

〈표 9〉 주제전문사서제도 도입 전후의 대출횟수

구분	주제전문사서제도 이전		주제전문사서제도 이후		T값(P값)
	n	M(SD)	n	M(SD)	
전체	87,770	3.87(6.49)	98,665	2.86(5.23)	37.04(0.000)*

〈표 10〉 주제전문사서제도 도입 전후의 도서별 대출횟수

구분	주제전문사서제도 이전		주제전문사서제도 이후		T값(P값)
	n	M(SD)	n	M(SD)	
국내서	69,825	4.59(6.93)	73,767	3.52(5.53)	32.40(0.000)*
국외서	17,945	1.08(3.00)	24,898	0.92(3.60)	4.69(0.000)*

타났다(0.000).

이러한 결과는 서울 소재 주요 6개 대학의 도서관 대출이 스마트폰을 비롯한 통신기와 SNS 서비스의 발전, 그리고 독서교육 등의 영향으로 2000년대 후반을 기점으로 급속히 감소한 것으로 나타난 김충령, 김지연(2013)의 연구와도 그 궤를 같이하는 것이어서 국내 대학도서관의 전반적 경향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이들의 연구대상인 서울 소재 6개 대학도서관을 분석한 결과, 주제전문사서제도를 도입한 곳도 있는 반면, 도입하지 않은 곳도 있어 국내 대학도서관의 대출 횟수의 감소는 주제전문사서제도의 도입 여부와 관계없이 국내 대부분의 대학도서관에 해당하는 공통적 현상임을 알 수 있다.

5.2 선정도서의 신분별 대출횟수 비교

〈표 11〉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교수가 선정한 도서의 대출 횟수는 주제전문사서제도의 도입 이전(0.72)에 비해 주제전문사서제도를 도입

한 이후(0.96)에 증가하였으며,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0.000)으로 나타났다. 국내서의 경우, 주제전문사서제도의 도입 이전(2.04)에 비해 주제전문사서제도를 도입한 이후(2.16)에 증가하였으나,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0.309)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국외서의 경우는 주제전문사서제도의 도입 이전(0.56)에 비해 주제전문사서제도를 도입한 이후(0.77)의 증가 폭이 크고, 또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0.000)으로 나타났다.

〈표 1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사서가 선정한 도서의 대출 횟수는 주제전문사서제도의 도입 이전(3.24)에 비해 주제전문사서제도를 도입한 이후(2.15)에 감소하였으며,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0.000)으로 나타났다. 국내서의 경우, 주제전문사서제도의 도입 이전(3.54)이 주제전문사서제도를 도입한 이후(2.45)보다 많았고,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0.000)으로 나타

〈표 11〉 주제전문사서제도 도입 전후의 교수 선정도서의 대출횟수 비교

구분	주제전문사서제도 이전		주제전문사서제도 이후		T값(P값)
	n	M(SD)	n	M(SD)	
국내서	1,349	2.04(3.20)	1,499	2.16(3.18)	-1.02(0.309)
국외서	11,178	0.56(1.04)	9,405	0.77(1.16)	-13.58(0.000)*
계	12,527	0.72(1.51)	10,904	0.96(1.67)	-11.57(0.000)*

〈표 12〉 주제전문사서제도 도입 전후의 사서 선정도서의 대출횟수 비교

구분	주제전문사서제도 이전		주제전문사서제도 이후		T값(P값)
	n	M(SD)	n	M(SD)	
국내서	43,074	3.54(5.58)	51,937	2.45(4.12)	34.842(0.000)*
국외서	4,296	0.24(1.10)	9,805	0.58(4.63)	-4.73(0.000)*
계	47,370	3.24(5.41)	61,742	2.15(4.26)	37.39(0.000)*

났다. 반면에 국외서의 경우는 주제전문사서제도의 도입 이전(0.24)에 비해 주제전문사서제도를 도입한 이후(0.58)가 많았고,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0.000)으로 나타났다.

〈표 13〉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학생이 선정한 도서의 대출 횟수는 주제전문사서제도의 도입 이전(6.35)에 비해 주제전문사서제도를 도입한 이후(5.35)에 감소하였으며,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0.000)으로 나타났다. 국내서의 경우, 주제전문사서제도의 도입 이전(6.49)이 주제전문사서제도를 도입한 이후(6.36)보다 높았으나,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0.074)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국외서의 경우는 주제전문사서제도의 도입 이전(4.86)에 비해 주제전문사서제도를 도입한 이후(4.09)가 낮았고,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0.000)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전반적으로 대학도서관에서의 대출 횟수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교수와 사서가 선정한 국외서의 대출 횟수가 유의미하게 증가한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는 주제전문사서제도의 도입 효과라고 판단된다. 판단의 근거는 S대학교 도서관의 경우, 주제전문사서의 도서선정 업무가 국외서를 위주로 진행되었

기 때문이다. 또한 주제전문사서제도가 도입되면서 S대학교 도서관이 학생들에 대한 서비스는 현상을 유지한 반면에 상대적으로 교수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지원서비스에 초점을 맞추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교수들에게 양질의 국외서 도서목록을 제공하여 도서선정 업무를 지원하고 수업과 관련된 국외서의 구입 업무를 적극 제공하는 한편, 교수와 학생을 대상으로 한 참고서비스를 통해서 파악된 이용자들의 실질적인 요구를 도서 선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한 결과로 해석된다.

그리고 국외서의 경우에는 교수와 사서가 선정한 도서의 대출 횟수가 주제전문사서제도 도입 이전과 비교하여 도입 이후에 유의미하게 증가한데 반해, 학생이 선정한 도서의 경우는 유의미하게 감소하였다. 또한 국내서의 경우에는 교수와 학생이 선정한 도서의 경우, 주제전문사서제도 도입 이전과 이후의 대출 횟수에 차이가 없는데 반해 사서가 선정한 도서의 경우에는 주제전문사서제도 도입 이전과 비교하여 도입 이후의 대출 횟수가 유의미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러한 결과를 근거로 하여 향후 도서 선정에 있어 국외서의 경우는 도서선정에 있어 교수와 사서의 참여를 확대하고, 국내서의 경우는 교수와 학생의 참여를 확대하여야 함을 알 수 있다.

〈표 13〉 주제전문사서제도 도입 전후의 학생 선정도서의 대출횟수 비교

구분	주제전문사서제도 이전		주제전문사서제도 이후		T값(P값)
	n	M(SD)	n	M(SD)	
국내서	25,402	6.49(8.55)	20,331	6.36(7.46)	1.79(0.074)
국외서	2,471	4.86(6.45)	5,688	4.09(0.054)	26.06(0.000)*
계	27,873	6.35(8.39)	26,019	5.35(7.12)	14.77(0.000)*

5.3 선정도서의 성별 대출 횟수 비교

〈표 14〉에서 보는 바와 같이 남성이 선정한 도서의 대출 횟수는 주제전문사서제도의 도입 이전(3.56)이 주제전문사서제도를 도입한 이후(2.44)보다 높았으며,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0.000)으로 나타났다. 여성의 경우도 주제전문사서제도를 도입하기 이전(5.44)이 주제전문사서제도를 도입한 이후(3.22)보다 높았으며,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0.000)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성별에 관계없이 주제전문사서제도의 도입 이전이 주제전문사서제도를 도입한 이후보다 선정도서에 대한 대출 횟수가 높고,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를 신분별로 살펴보면 〈표 15〉에서 보는 같이 교수의 경우는 남성이 선정한 도서의 대출횟수가 주제전문사서제도의 도입 이전(0.68)보다 주제전문사서제도를 도입한 이후(0.87)에 많았고,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0.000)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여성의 경우도 주제전문사서제도의 도입 이전(1.07)에 비해 주제전문사서제도를 도입한 이후(1.46)가 많았고, 이러한 차이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0.000)으로 나타났다.

〈표 16〉에서 보는 바와 사서의 경우는 남성이 선정한 도서의 대출횟수는 주제전문사서제도의 도입 이전(3.25)이 주제전문사서제도를

〈표 14〉 주제전문사서제도 도입 전후의 선정도서의 성별 대출횟수

구분	주제전문사서제도 이전		주제전문사서제도 이후		T값(P값)
	n	M(SD)	n	M(SD)	
남성	73,396	3.56(6.00)	45,244	2.44(5.01)	33.19(0.000)*
여성	14,374	5.44(8.37)	53,421	3.22(5.39)	38.53(0.000)*

〈표 15〉 주제전문사서제도 도입 전후의 교수 선정도서의 성별 대출횟수

구분	주제전문사서제도 이전		주제전문사서제도 이후		T값(P값)
	n	M(SD)	n	M(SD)	
남성	11,319	0.68(1.48)	9,187	0.87(1.63)	-8.47(0.000)*
여성	1,208	1.07(1.74)	1,717	1.46(1.74)	-5.94(0.000)*

〈표 16〉 주제전문사서제도 도입 전후의 사서 선정도서의 성별 대출횟수

구분	주제전문사서제도 이전		주제전문사서제도 이후		T값(P값)
	n	M(SD)	n	M(SD)	
남성	45,149	3.25(5.24)	22,099	1.22(3.30)	52.59(0.000)*
여성	2,221	3.21(8.24)	39,643	2.67(4.63)	5.14(0.000)*

〈표 17〉 주제전문사서제도 도입 전후의 학생 선정도서의 성별 대출횟수

구분	주제전문사서제도 이전		주제전문사서제도 이후		T값(P값)
	n	M(SD)	n	M(SD)	
남성	16,928	6.33(8.26)	13,958	5.41(7.05)	10.40(0.000)*
여성	10,945	6.38(8.60)	12,061	5.29(7.21)	10.43(0.000)*

도입한 이후(1.22)보다 많았고,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0.000)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여성의 경우도 주제전문사서제도의 도입 이전(3.21)이 주제전문사서제도를 도입한 이후(2.67)보다 많았고, 이러한 차이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0.000)으로 나타났다.

〈표 17〉에서 보는 같이 학생의 경우는 남성이 선정한 도서의 대출 횟수는 주제전문사서제도의 도입 이전(6.33)이 주제전문사서제도를 도입한 이후(5.41)보다 많았고,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0.000)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여성의 경우도 주제전문사서제도의 도입 이전(6.38)이 주제전문사서제도를 도입한 이후(5.29)보다 많았고, 이러한 차이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0.000)으로 나타났다.

즉, 성별로 선정한 도서의 대출 횟수는 주제전문사서제도의 도입 이전에 비해 주제전문사서제도의 도입 이후가 남성과 여성 모두에서 유의미하게 감소했음을 알 수 있다. 교수가 선정한 도서의 대출 횟수는 주제전문사서제도의 도입 이전에 비해 주제전문사서제도의 도입 이후가 남성과 여성 모두에서 유의미하게 증가하였으며, 사서와 학생이 선정한 도서의 대출 횟수는 주제전문사서제도의 도입 이전에 비해 주제전문사서제도의 도입 이후가 남성과 여성 모

두에서 유의미하게 감소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사서와 학생들의 도서선정이 주로 국내서 위주인데 반해 교수의 도서선정은 주로 국외서 위주이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5.4 선정도서의 학문분야별 대출 횟수 비교

〈표 18〉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학문분야별로 선정한 도서의 대출횟수는 주제전문사서제도의 도입 이전과 이후에서 경제대학, 공과대학, 사범대학, 생명공학대학, 스포츠과학대학, 약학대학, 유학대학, 자연과학대학의 구성원이 선정한 도서에는 차이가 없는 반면에 경영대학, 문과대학, 법과대학, 사회과학대학, 예술대학의 구성원이 선정한 도서는 유의미하게 감소하였고, 오로지 정보통신대학의 구성원이 선정한 도서만이 유의미하게 증가하였다.

〈표 19〉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학문분야별로 교수가 선정한 도서의 대출횟수는 주제전문사서제도의 도입 이전에 비해 주제전문사서제도의 도입 이후에는 경영대학, 경제대학, 공과대학, 사범대학, 스포츠과학대학 5개 대학의 구성원이 선정한 도서에는 차이가 없었으며, 문과대학, 법과대학, 사회과학대학, 생명공학대학, 약학대학, 예술대학, 유학대학, 자연과학대학, 정보통신대학의 9개 대학의 구성원이 선정한 도

〈표 18〉 주제전문사서제도 도입 전후의 학문분야별 대출횟수

구분	주제전문사서제도 이전		주제전문사서제도 이후		T값(P값)
	n	M(SD)	n	M(SD)	
경영대학	2,837	5.63(7.68)	2,041	5.14(7.22)	2.23(0.026)*
경제대학	1,735	5.23(7.49)	2,136	5.52(7.19)	-1.21(0.226)
공과대학	6,421	5.39(8.15)	4,771	5.23(6.94)	1.06(0.288)
문과대학	7,911	3.27(6.44)	7,180	2.84(5.16)	4.51(0.000)*
법과대학	1,187	4.98(7.36)	5,605	2.69(5.39)	12.39(0.000)*
사범대학	4,022	4.60(7.06)	1,684	4.42(6.31)	0.89(0.372)
사회과학대학	5,120	4.11(7.50)	4,387	3.73(6.14)	2.67(0.008)*
생명공학대학	947	5.09(8.85)	512	5.90(7.54)	-1.76(0.078)
스포츠과학대학	308	4.10(4.84)	276	4.67(5.68)	-1.30(0.194)
약학대학	988	5.07(7.33)	785	4.59(6.64)	1.40(0.161)
예술대학	1,717	5.29(7.60)	1,481	3.34(4.78)	8.52(0.000)*
유학대학	1,464	3.17(6.90)	386	3.45(6.04)	-0.71(0.475)
자연과학대학	2,104	4.72(7.98)	2,037	4.98(7.65)	-1.07(0.283)
정보통신대학	3,579	5.58(7.91)	2,740	6.20(7.68)	-3.14(0.002)*

〈표 19〉 주제전문사서제도 도입 전후의 교수 선정도서의 학문분야별 대출횟수

구분	주제전문사서제도 이전		주제전문사서제도 이후		T값(P값)
	n	M(SD)	n	M(SD)	
경영대학	652	1.04(1.74)	355	1.20(1.82)	-1.36(0.175)
경제대학	291	0.93(1.79)	246	1.150(0.980)	-1.71(0.087)
공과대학	1,474	0.92(1.75)	791	1.01(1.75)	-1.19(0.233)
문과대학	3,274	0.270(0.796)	2,404	0.557(0.973)	-12.21(0.000)*
법과대학	227	0.317(0.785)	3,567	0.74(1.24)	-5.12(0.000)*
사범대학	1,034	0.66(1.15)	287	0.75(3.06)	-0.72(0.472)
사회과학대학	2,171	1.17(2.03)	1,426	1.61(1.94)	-6.57(0.000)*
생명공학대학	295	0.53(1.19)	60	1.117(0.555)	-3.74(0.000)*
스포츠과학대학	102	1.53(2.37)	41	1.390(0.833)	0.37(0.715)
약학대학	310	0.72(1.18)	249	1.61(2.40)	-5.71(0.000)*
예술대학	321	0.94(1.35)	467	1.24(1.43)	-2.96(0.003)*
유학대학	667	0.46(1.88)	97	1.01(3.51)	-2.37(0.018)*
자연과학대학	843	0.71(1.32)	345	1.04(1.56)	-3.76(0.000)*
정보통신대학	865	0.94(1.25)	314	1.91(3.45)	-7.13(0.000)*

서는 유의미하게 증가하였다.

〈표 20〉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학문분야별로 학생이 선정된 도서의 대출횟수는 주제전문사

서제도의 도입 이전에 비해 주제전문사서제도의 도입 이후에는 경제대학, 법과대학, 생명공학대학, 스포츠과학대학의 4개 대학의 구성원

〈표 20〉 주제전문사서제도 도입 전후의 학생 선정도서의 학문분야별 대출횟수

구분	주제전문사서제도 이전		주제전문사서제도 이후		T값(P값)
	n	M(SD)	n	M(SD)	
경영대학	2,185	7.00(8.22)	1,686	5.97(7.65)	3.96(0.000)*
경제대학	1,444	6.10(7.89)	1,890	6.09(7.44)	0.04(0.965)
공과대학	4,947	6.72(8.81)	3,980	6.07(7.27)	3.73(0.000)*
문과대학	4,637	5.38(7.71)	4,776	3.98(5.97)	9.87(0.000)*
법과대학	960	6.09(7.78)	2,038	6.10(7.68)	-0.06(0.954)
사범대학	2,988	6.09(7.78)	1,397	5.18(6.53)	3.29(0.001)*
사회과학대학	2,949	6.28(9.13)	2,961	4.75(7.13)	7.17(0.000)*
생명공학대학	652	7.15(9.98)	452	6.53(7.80)	1.10(0.273)
스포츠과학대학	206	5.38(5.24)	235	5.24(5.96)	0.25(0.800)
약학대학	678	7.05(8.07)	536	5.98(7.48)	2.37(0.018)*
예술대학	1,396	6.29(8.08)	1,014	4.31(5.43)	6.78(0.000)*
유학대학	797	5.44(8.56)	289	4.26(6.48)	2.13(0.033)*
자연과학대학	1,261	7.40(9.34)	1,692	5.78(8.13)	5.02(0.000)*
정보통신대학	2,714	7.06(8.55)	2,426	6.76(7.90)	1.30(0.192)

이 선정된 도서에는 차이가 없었으며, 경영대학, 문과대학, 공과대학, 사범대학, 사회과학대학, 약학대학, 예술대학, 유학대학, 자연과학대학, 정보통신대학의 10개 대학의 구성원이 선정된 도서는 유의미하게 감소하였다.

학문분야별 대출 횟수에서도 교수는 총 14개 학문분야 중에서 5개 학문분야에서 선정된 도서의 대출 횟수는 차이가 없으나, 9개 학문분야에서 선정된 도서의 대출 횟수는 유의미하게 증가하였다. 이에 반하여, 학생의 경우는 4개 학문분야에서 선정된 도서의 대출 횟수는 차이가 없으나, 10개 학문분야에서 선정된 도서의 대출 횟수는 유의미하게 감소하였다. 이 역시 S대학교 도서관의 주제전문사서제도가 주로 국외서에 대한 선정 활동을 지원한 결과에 기인한 것으로 해석된다.

6.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대학도서관에서 실제 선정된 도서의 대출횟수를 분석하여 주제전문사서제도의 도입 전후에 따른 도서선정의 효과성을 실증하고자 하는 연구였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의 대상이 된 S대학교 도서관이 주제전문사서제도를 도입한 2005년 9월을 기점으로 하여 직전 3년(2002년~2004년)과 최근 3년(2010년~2012년)에 구입한 도서 총 186,435권에 대한 총 622,213권의 대출 횟수를 도서별, 신분별, 성별, 학문분야별 차이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주제전문사서제도의 도입 이전과 비교하여 도입 이후에는 도서선정의 비율이 사서는 54.0%에서 62.6%로 증가한 반면에 교수는 14.3%에서 11.0%로, 학생은 31.7%에서 26.4%로 감소하였다.

둘째, 학문분야별로 선정된 도서의 대출 횟수에서는 교수가 선정한 도서의 경우는 스포츠 과학대학, 사회과학대학, 정보통신대학의 순으로 많이 대출되었으며, 학생이 선정한 도서는 정보통신대학, 생명공학대학, 약학대학의 순이었다. 따라서 학문분야별로 선정 주제에 따라 대출 횟수가 많은 학문분야는 도서선정 과정에 적극 참여시킴으로써 도서선정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

셋째, 주제전문사서제도의 도입 이전과 비교하여 도입 이후의 전체 대출횟수는 국내서와 국외서 모두 감소하였으나, 교수와 사서가 선정한 국외서의 대출은 유의미하게 증가하였다. 이는 주제전문사서의 도서선정 업무가 주로 국외서를 위주로 진행되었고, 주제전문사서제가 도입되면서 도서관 서비스가 교수들에 대한 연구지원에 초점을 맞춘 결과이다.

넷째, 학문분야별 대출 횟수에서는 교수가 선정한 도서는 총 14개 학문분야 중에서 9개 학문분야에서 선정된 도서의 대출 횟수가 유의미하게 증가하였다. 반면에 학생이 선정한 도서의 경우는 10개 학문분야에서 선정된 도서의 대출 횟수가 유의미하게 감소하였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를 지니고 있다. 하나는 국내서의 경우, 비주제전문사서에 의해 선정된 도서의 일부가 포함되어 있어 주제전문

사서의 선정 효과에 대한 보다 완전한 결과를 제시할 수 없었다는 점이다. 다른 하나는 사서가 선정한 도서의 경우, 여성이 선정한 도서가 남성이 선정한 도서보다 2배 이상 많은 대출 횟수를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인 조사를 통하여 그 원인을 밝히지 못했다는 점이다. 마지막 하나는 학문분야별로 주제전문사서제의 도입 이전과 비교하여 도입 이후의 도서 대출 횟수의 증감에 따른 원인 분석을 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따라서 국내서의 경우는 주제전문사서와 비주제전문사서에 의해서 선정된 도서들에 대한 대출횟수의 비교와 여성과 남성 사서에 의해 이루어진 선정도서의 대출 횟수 차이의 원인, 그리고 학문분야별 주제전문사서 도입 이후의 증감 원인에 관한 상세한 후속 연구를 통하여 국내서의 선정 주제, 성별, 학문분야별 주제전문사서의 도서 선정이 대출 횟수에 미치는 차이를 밝히고 나아가 그러한 차이의 원인을 명확한 근거를 통해 제시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본 연구를 통하여 주제전문사서에 의한 도서 선정이 보다 효과적이라는 결론과 함께 주제전문사서가 도서선정의 주체가 되어 보다 합리적인 장서구성을 이루고 나아가 도서관 서비스의 개선과 함께 도서관 이용자의 만족도를 향상시킬 수 있기를 기대한다.

참 고 문 헌

- 김정근 (1993). 대학도서관에 있어서 사서중심의 장서 개발은 가능한가?. 도서관학논집, 20, 61-105.
- 김정근, 구영미 (2001). 교수는 적합한 선정자인가.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32(1), 151-170.
- 김충령, 김지연 (2013. 2. 2~3). 대학생들 '폰'은 가깝고 책은 멀다. 조선일보, p. B3.
- 남여훈 (2011). 대학도서관의 주제전문서비스 운영 현황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문헌정보학과.
- 성동희 (2008). 장서 선정업무의 정책 소개. 사대도협회지, 9, 187-204.
- 황옥경 (2007). 대학도서관에서의 도서 선정 주체에 따른 도서 선정 효과성 비교. 한국문헌정보학회지, 41(1), 125-138. <http://dx.doi.org/10.4275/KSLIS.2007.41.1.125>
- Connell, T. H. (1991). Comparing the circulation of library materials ordered by faculty and librarians. Collection Management, 14(1/2), 73-84.
- Crossley, C. A. (1974). The subject specialist librarian in an academic library: His role and place. Aslib Proceedings, 26(6), 236-249. <http://dx.doi.org/10.1108/eb050458>
- Hamaber, C. A. (1992). Some measures of cost effectiveness in library collections. Journal of Library Administration, 16(3), 57-69.
- Martin, J. V. (1996). Subject specialization in British university libraries: A second survey. Journal of Librarianship and Information Science, 28(3), 159-169.
- Millson-Martula, C. (1985). The effectiveness of book selection agents in a small academic library. College & Research Libraries, 46(6), 504-510.
- Mouyal, K. F. (2007). A balancing act: User demand versus programs driven collection management at a small, regional academic library. Collection Management, 30(4), 43-57. http://dx.doi.org/10.1300/J105v30n04_04

• 국문 참고문헌에 대한 영문 표기
(English translation of references written in Korean)

- Hwang, Ok-Gyung (2007). A study on the effectiveness of book selection at the academic library.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41(1), 125-138. <http://dx.doi.org/10.4275/KSLIS.2007.41.1.125>
- Kim, Choong-Ryung, & Kim, Ji-Yeon (2013, February. 2~3.). University students are near phones and far from books. Chosunilbo, p. B3.

- Kim, Jung-Gun (1993). Is the librarian-centered collection development possible in college and university libraries?.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20, 61-105.
- Kim, Jung-Gun, & Ku, Young-Mi (2001). Are professors good selector?.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32(1), 151-170.
- Nam, Yeo-Hun (2011). A study on recognize the state of subject specific services in Korean academic library. Unpublished master's thesis, The Graduate School of Sookmyung Women's University, Department of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 Sung, Dong-Hee (2008). The introduction to the policy of book selection. *Journal of the Korean Private University Library Association*, 9, 187-204.

